

한 교사교육자의 학교기반 금융교육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이동성(전주교대, 교수)**
최송이(전주양현초, 교사)

<<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한 교사교육자의 학교기반 금융교육 관련 교수경험의 실체와 의미를 교사교육의 관점에서 해석적으로 기술하는 데 있다. 이 글은 교사교육의 관점에서 학교기반 금융교육 관련 교수경험을 재현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의 한 유형인 자문화기술지를 채택하였다. 이 글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오가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8개 코드, 4개 하위범주, 2개 범주, 1개 핵심범주를 생성하여 분석적 및 해석적 글쓰기를 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학교기반 금융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교사들과 함께 공유하고, 금융교육에 대한 교사의 교육역량을 강조함으로써 학교교사들을 금융교육에 초대하였다. 둘째,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학교교사들과 함께 학교기반 금융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살피고,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위한 최적화된 수업방법을 논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금융교육 관련 교수경험은 교사교육의 차원에서 볼 때, 교사들과 함께 학교기반 금융교육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일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교사교육자의 학교기반 금융교육 관련 교수경험을 교사교육의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학교교사의 금융이해력을 증진하고, 학교교사의 금융교육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사연수에 교육적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 교사교육자, 학교기반 금융교육, 교사교육, 자문화기술지

* 이 연구는 2023년 전주교육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 교신저자, dslee@jnue.kr

1. 서론

금융자본주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학교교육과 금융은 점차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OECD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새로운 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의 금융역량이나 금융이해력을 신장하기 위해 학교교사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동 및 청소년의 금융역량이나 금융이해력은 바로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금융이해력과 전문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Sherraden et al., 2011; Rinaldi, 2013).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은 금융 지식, 금융 태도, 금융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금융교육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이나 투자 판단을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소연 외, 2020; 손정국·유진·김영민, 2017). 그리고 금융역량의 하위 개념인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은 21세기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이소연 외, 2020; 조지민·임해미·천규승·김경모, 2014). 금융이해력은 건전한 금융 의사결정을 위한 인식,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인데(INFE, 2011), 금융현상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강조한다. 이 글은 금융역량과 금융이해력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유사 개념으로 간주하고 한다. 왜냐하면, 두 개념 모두가 금융에 대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바탕으로 금융 의사결정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금융역량 및 금융이해력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경제적 자유인이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이라 볼 수 있다(Miller & VanFossen, 2008; Schug & Lopus, 2008; Wagner, 2019). 왜냐하면, 금융역량이나 금융이해력은 개인의 생존과 안전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금융역량이나 금융이해력 증진이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사교육은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박영옥, 2021; Kiyosaki, 2017). 근대학교는 정치 영역에서의 인권과 경제 영역에서의 재산권이 모순적으로 충돌하는 장으로 볼 수 있는데(Bowles & Gintis, 1986), 오늘날 교사교육은 인권을 강조하는 민주시민 양성에 주목하고 있으나, 경제적 주체 양성에는 다소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형성된 금융역량이나 금융이해력은 성인기 이후 경제적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중요하다(Bernheim & Garrett, 2003; 홍현의, 최정민, 2021). 최근에는 학교와 교사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고무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학교기반 금융교육의 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 등 금융교육과 정과 수업방법에 대한 교사교육이 미진한 편이다(이소연 외, 2020). 왜냐하면, 현행

학교기반 금융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기본교과가 아닌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루고 있어서 학교급별로 교육내용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낮으며, 수업시수의 확보도 어렵고, 실제적인 금융생활에 필요한 수업 방법과 학습자료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이소연 외, 2020; 천규승, 2012).

특히, 한국의 학교기반 금융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 빈약하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교육내용보다는 기초적인 금융지식 및 영역(소비, 저축)을 강조하거나, 소비자교육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이종희·이연숙, 2015: 4). 유·초·중학교 교사들은 기존 교원양성기관이나 교육연수기관에서 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다. 학교교사의 금융이해력과 금융교육 전문성은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원양성(연수)기관의 교사교육자는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실천할 교사들을 대상으로 금융역량이나 금융이해력을 증진하기 위한 금융 관련 교사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이종희·이연숙, 2015; 최윤정·김예지, 2015; Mandell, 2009; Peng et al., 2007).

우리나라의 학교기반 금융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금융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시도하고(김하민, 2022; 이소연, 2018; 조지민·임해미·천규승·김경모, 2014), 금융 교육과정과 수업방법을 개발하며(성경희 외, 2022; 최윤정·김예지, 2015; 한진수, 2017), 학생과 교사들의 금융교육 경험을 질적으로 탐구하였다(김동진·김지훈, 2021; 장혜숙·한경근, 2022). 하지만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실현하는 교사들을 가르치는 교사교육자의 금융교육 관련 교수경험의 실체와 의미를 당사자의 맥락과 입장에서 생동감 있게 조명한 교육연구는 흔치 않았다.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활성화기 위해서는 교사 대상 금융교육 경험뿐만 아니라,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교육자의 금융교육 교수경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사교육자는 교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을 신장하는 데 중요한 교수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문화기술지의 유형인 현지인 문화기술지(native-ethnography)는 특정한 집단의 내부자인 연구자(저자)의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연구자를 둘러싼 집단 구성원들(교사들)의 경험을 아울러 이야기함으로써, 그러한 경험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유용한 질적 연구방법론이다(Reed-Danahay, 1997). 따라서 이 글은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교사교육자의 학교기반 금융교육 교수경험의 실체와 의미를 교사교육의 관점에서 해석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학교기반 금융교육 수업에서 유·초·중학교 교사들을 가르치면서 어떠한 교수경험을 하였는가?” 이 연구는 교사교육자의 학교기반 금융교육 관련 교수경험을 교사교육의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교사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을 증진하고, 금융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연수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기반 금융교육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개념은 개인적 재무교육(personal finance education), 금융소비자교육(financial consumer education), 금융이해력교육(financial literacy education)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이종희·이연숙, 2015: 2).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금융소비자의 개인적 차원의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금융현상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3가지 용어를 포괄하는 ‘금융교육’을 공식용어로 사용하였다(이종희·이연숙, 2015). 따라서 이 글에서 사용하는 ‘학교기반 금융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교사의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해 금융이해력을 신장하는 교육활동을 지칭한다.

학교기반 금융교육은 교사의 금융이해력이나 금융역량을 바탕으로 금융 교육과정과 수업을 실현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책임감 있는 금융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소연 외, 2020). 학생들은 학교와 교사가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가정(부모)과 사회가 시도할 수 없었던 금융교육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에 금융소비자 혹은 주체가 될 학습자들에게 건전한 금융문화와 행동양식을 가르칠 수 있다(이종희·이연숙, 2015). 특히, 교사교육의 맥락에서 볼 때 학교기반 금융교육은 계층이나 세대 사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 기폭제가 될 수 있다(한진수, 2017; Elliott, Sherraden, Johnson, & Guo, 2010).

이러한 학교기반 금융교육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역량은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과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다. 금융역량은 자신의 금융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 능력이며, 이용 가능한 금융서비스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한진수, 2019). 즉, 금융 지식, 금융 행동, 금융 태도를 포괄하는 금융역량은 금융교육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이나 투자 판단을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박형준, 2022; 이소연 외, 2020; 손정국·유진·김영민, 2017). 그리고 금융이해력은 건전한 금융 의사결정을 위한 인식,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인데(INFE, 2011), 우선적으로 금융과 리스크(risk)라는 개념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지민·임해미·천규승·김경모, 2014; OECD, 2014). 즉, 금융이해력은 금융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개인과 사회의 금융복

지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능, 동기, 자신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OECD, 2014: 33). 이러한 금융이해력은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이소연 외, 2020; 조지민·임해미·천규승·김경모, 2014).

한편, 금융자본주의의 출현으로 인해 새로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심화된 금융역량과 금융이해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금융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생존이 가능하다(Rinaldi, 2013; Sherraden et al., 2011).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나 가정 내 부모들로부터 금융역량이나 금융이해력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가 충분치 않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금융역량과 금융이해력의 격차는 개인이나 세대 간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Miller & VanFossen, 2008; Schug & Lopus, 2008; Wagner, 2019). 이러한 이유와 맥락에서 교사교육자와 학교교사가 주도하는 금융교육은 개인 및 집단 간 금융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적 시도가 될 수 있다(Elliott, Sherraden, Johnson, & Guo, 2010).

2.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의 학교기반 금융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범교과 학습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융합선택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을 신설하여 학생의 금융이해력을 도모하였다(박형준, 김주현, 2023). 금융교육협의회는 2020년에 금융교육 표준안의 성취기준을 학교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었다(이소연 외, 2020) 이는 학교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금융교육 표준안의 성취기준이 일정 부분 반영됨을 의미하기에 고무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2021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교육 표준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초·중학교 수준에서의 금융교육은 기본 교과나 단일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이라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또한, 학교기반 금융교육은 학교교사보다는 민간기관(은행, 증권사)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이소연 외, 2020: 22-23).

한편, 우리나라의 학교기반 금융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①금융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분석, ②금융 교육과정 개발 및 수업방법 연구, ③학교주체별 금융교육 경험연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국내 선행연구는 금융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국가 간 비교분석을 하거나(박형준, 2022), 특정 교과(사회과, 도덕과 등)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김하민, 2022; 이소연, 2018; 조지민·임해미·천규승·김경모, 2014). 대표적으로, 박형준(2022)은 우리나라

의 초·중·고 금융교육 교육과정과 미국의 CEE 및 Jump\$Start의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교육 교육과정은 학교급별로 뚜렷한 특징이 없고, 지출과 신용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였다. 반면, 미국의 금융교육은 저학년일수록 소득(수입), 지출, 저축을 강조하였고, 고학년일수록 투자, 신용, 위험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였다(박형준, 2022).

한편, 조지민·임해미·천규승·김경모(2014)는 PISA의 금융이해력 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과 내 금융교육 관련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금융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이소연(2018)은 통시적 관점에서 사회과 금융교육 관련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사회과 교육과정 내 금융교육은 전반적으로 금융교육보다는 소비자교육에 가까웠다(이소연, 2018). 김하민(2022)은 금융교육 관련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측면에서는 학교 급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교과서 차원에서는 교과내용의 계열성이 낮고, 교과 간 학습내용이 중복되었다. 학습내용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학교기반 금융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는 적절성과 체계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국내 선행연구는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내용체계)을 개발하거나(성경희 외, 2022), 수업방법을 연구하였다(최윤정·김예지, 2015; 한진수, 2017). 대표적으로, 성경희와 동료들(2022)은 초·중·고 학교교육에서 소비자교육을 위한 내용체계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학교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소비자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내용의 통합성과 계열성을 고려하여 학교급별로 목표를 구체화하였으며, 학습내용의 연계성과 위계성 고려하여 소비자교육의 내용체계와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교육목표를 설정하였고, 그에 따른 학습내용을 체계적으로 개발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컸으나, 금융교육 전반보다는 소비자교육에 한정되었다.

한편, 한진수(2017)는 학교기반 금융수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수업방법을 제안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내용을 제시해서는 안 되며, 금융지식뿐만 아니라 태도 및 가치, 기능, 습관, 행동을 균형적으로 지도해야 하고, 교과 간 융합을 통해 실제적인 금융교육을 시도해야 한다(한진수, 2017). 그리고 최윤정·김예지(2015)는 미국 고등학교 경제교사의 금융교육 우수 수업사례를 분석하여 수업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제교사는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 실제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주체적으로 내릴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금융수업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금융에 대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균형적으로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였다(최윤정·김예지, 2015). 이 연구는

미국 교사의 우수한 금융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발달을 도모한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국내 선행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금융교육 경험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서술하였다. 대표적으로, 정영선(2015)은 청소년들의 금융교육과 금융행위에 대한 내러티브를 분석하였는데, 효과적인 금융교육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금융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성이 중요하였다. 그리고 학교기반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금융수업 경험의 축적과 수업실천 사례의 공유를 위한 교사연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김동진·김지훈, 2021; 장혜숙·한경근, 2022). 정영선(2015)의 연구는 교사의 눈을 통해 학생들의 금융교육 참여경험을 탐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으나, 참여 학생들이 계약계층(아동복지시설 청소년)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장혜숙·한경근(2022)도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금융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경험에 제한되어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금융교육 경험에 대한 교육연구가 부족하였다. 특히, 학교기반 금융교육에서 교사의 금융역량이나 수업 전문성 개발이 중요함에도, 교사들을 가르치는 교사교육자가 교사들의 금융이해력을 증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교육적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질적 사례연구의 하나인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한 교사교육자의 학교기반 금융교육 관련 교수경험의 실체와 의미를 교사교육의 관점에서 해석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

(1) 교사교육자이자 자문화기술자로서 ‘나’

질적 사례연구 혹은 자기 연구(self-study)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는 개인(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사회문화적 맥락과 조건에 연결하여 공유된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구방법이다(Chang, 2008). 이 글은 한 교사교육자의 학교기반 금융교육 경험을 교사교육의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하여 자문화기술지를 채택하였다. 특히, 이 글은 연구자의 금융교육 교수경험이 교사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었기에, 자전적 문화기술지(autobiographic ethnography)보다는 현지인 문화기술지(native ethnography)를 채택하였다.

자문화기술지에서 연구자(저자)는 연구의 대상이자 배경이기 때문에, 연구 주제와 관련한 연구자의 개인적 상황성과 위치성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Chang, 2008). 자문

화기술자(autoethnographer)로서 나는 초등교원 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와 학교교사를 가르치고 있는 12년차 교사교육자이다. 지난 10년 가까이 다문화교육과 소규모 학교를 연구했던 나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과 교육을 개선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밖 삶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해야 함을 자각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실제적인 문제는 학교교육보다는 경제나 금융 불평등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나는 선이 넘도록 학교 밖의 삶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존재였고, 금융에는 관심조차도 없는 그야말로 백면서생(白面書生)이었다.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이러한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3년 전부터 금융투자자와 금융교육을 학습하였다. 그리고 지난해(2022년)에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대학원에 ‘혁신미래교육’이라는 전공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올해(2023년)는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교기반 금융교육’이라는 교과목을 새롭게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 글은 바로 저자가 한 교육대학원에서 ‘학교기반 금융교육’이라는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했던 개인적 교수경험(2023학년도 1학기: 2023학년도 3월부터 7월까지)에서 비롯되었다.

(2) 학교기반 금융교육과 수업참여 교사들

학교기반 금융교육 강좌는 개인적 재무교육이나 금융소비자교육보다 교사의 금융 이해력 신장에 방점을 두었다. 첫째, 미래사회를 주도할 경제적 자유인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교육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금융지식(금융자본주의, 화폐, 금리, 환율, 복리, 금융거래 방식 등)을 다루었다. 둘째, 이 강좌는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분석 및 개발, 교과서 및 학습자료 분석 및 개발, 교수·학습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금융교육 실천을 강조하였다. 셋째, 이 강좌는 금융지식과 금융교육 실천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금융태도를 강조하였다. 한편, 학교기반 금융교육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인적 특성과 강의계획서 개요는 다음 <표 III-1>, <표 III-2>와 같다.

<표 III-1> 수업참여 교사들의 인적 특성

가명	학교 / 직급	성별	교육경력	수업 참여 형태	담당과목
한송이	초등학교 교사	여	16년차	석사과정 2년차	초등교과
은하수	초등학교 교사	여	05년차	석사과정 2년차	초등교과
다정이	초등학교 교사	여	17년차	석사과정 2년차	초등교과
문희란	초등학교 교사	여	10년차	석사과정 2년차	초등교과

꽃미남	초등학교 교사	남	10년차	석사과정 2년차	초등교과
김연꽃	초등학교 교사	여	19년차	박사과정(수료) 청강	초등교과
여울목	초등학교 교사	여	11년차	학습연구년 사사	초등교과
데이지	유치원 교사	여	06년차	석사과정 2년차	유아교과
채송화	중학교 교사	여	20년차	학습연구년 사사	일본어

<표 III-2> 혁신미래교육전공(학교기반 금융교육) 강의계획서

강좌명	학교기반 금융교육	수업형태/학점(시간)	야간제/3학점(3시간)
목표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자본주의 사회에 조응할 수 있는 금융이해력, 교육과정 문해력, 수업 전문성을 기른다.		
참고문헌	박영옥(2021). 주식투자 절대원칙. 센시오. 앙드레 코스톨라니(2015).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미래의창.		
학습자료	금융 관련 유튜브 동영상 4편, 학교기반 금융교육 관련 학술논문(8편)		
과제	지정 분량의 학습내용에 대한 예습 및 리뷰 작성(A4 1매) 및 제출		
평가	출석(20%), 과제발표 및 토론(20%), 저널 및 리뷰(60%)		
수강인원	총 9명(유치원 교사 1명, 초등학교 교사 7명, 중학교 교사 1명)		
강의내용	이하 생략		

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문화기술지는 질적 사례연구와 자기연구(self-study)의 우산 아래 놓여 있어서 두 연구방법의 특징에 부합하는 자료수집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Chang, 2008). 자기연구에서 주요한 원자료는 탐구주제와 관련한 연구자 자신의 의식과 실천이다. 따라서 저자는 학교기반 금융교육 강좌를 운영하면서 파생된 개인적 기억자료, 반성적 저널 및 메모(12부), 자기관찰 및 자기인터뷰 자료(12회), 강의계획서(1부), 수업자료(유튜브 동영상 4편, 단행본 2부, 학술논문 8편)를 수집하였다. 한편, 질적 사례연구는 연구의 범위(시간, 공간, 인원)를 제한한다. 따라서 연구의 주요 기간을 2023년도 3월부터 7월까지로 한정하였고, 유·초·중학교 교사들(N=9)을 가르쳤던 교수경험(대면 및 비대면 수업)과 수업자료(교사 저널 및 리뷰 108부, 발표자료 14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 글은 교사교육의 관점에서 학교기반 금융교육 교수경험의 실체와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을 오가면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총 5차례에 걸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8개 코드(①학교기반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득하기, ②금융교육을 위한 교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다시 정의하기, ③금

용교육을 위한 교사의 금융이해력 신장을 유도하기, ④금융교육학적 이해를 넘어 실제적인 금융투자 경험을 공유하기, ⑤금융교육을 위한 세부 교육목표와 내용을 논의하기, ⑥금융 교육과정을 개발할 시 고려해야 할 점을 파악하기, ⑦금융교육을 위한 차별화된 수업방법을 상상하기, ⑧학습자료(교과서) 개발 방법에 대하여 의견 나누기), 4개 하위범주, 2개 범주, 1개 핵심범주를 생성하였다. 이러한 하위범주, 범주, 핵심범주의 개념적 위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자료 분석 결과표

핵심범주	범주	하위범주
교사들과 함께 학교기반 금융교육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교사들을 금융교육에 초대하기: “왜 학교에서 금융을 가르쳐야 하는가?”	학교기반 금융교육의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기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위한 교사의 교육역량을 기르기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수업방법 논의하기	학교기반 금융 교육과정 개발 방향 살피기: “무엇을 어느 정도 가르칠까?”
		금융교육을 위한 수업방법을 찾기: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까?”

3. 타당도 및 신뢰성 확보

이 글은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하였다. 첫째, 개인적 기억자료에 의존하는 자문화기술지의 방법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 내 자료(기억자료, 저널 및 메모, 자기관찰 및 자기인터뷰)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조 자료(수업자료, 학습자들의 저널 및 리뷰)를 추가로 수집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둘째, 자료 분석과 글쓰기 과정에서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기반 금융교육 수업참여 교사들(교사 9명)에게서 구성원 및 동료자 검증(2023. 07. 14)을 받았다. 셋째, 자문화기술지가 개인적 경험이나 기억에 의존할지라도, 글 속에 등장하는 타자들에 대한 윤리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논문에 등장하는 교사들의 이름을 가명 처리하고, 그들의 반성적 저널이나 학습자료를 수록할 시 사전 동의와 허락을 구하였다. 넷째, 개인적 이야기를 학술적인 이야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이야기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교사교육 차원에서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둘러싼 개인적 교수경험을 사회경제적 맥락과 조건에 연결하기 위해 분석적 및 해석적 글쓰기 방식을 채택하였다.

IV. 연구결과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학교기반 금융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교사들과 함께 공유하고, 금융교육에 대한 교사의 교육역량을 강조함으로써 교사들을 금융교육에 초대하였다. 또한,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교사들과 함께 학교기반 금융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살피고, 금융교육을 위한 최적화된 수업방법을 논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금융교육 교수경험은 교사교육의 차원에서 볼 때 교사들과 함께 학교기반 금융교육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일이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 교사들을 금융교육에 초대하기: “왜 학교에서 금융을 가르쳐야 하는가?”

(1) 학교기반 금융교육의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기

첫째,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학교기반 금융교육의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기 위하여 수업참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교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득하였다. 왜냐하면, 학교기반 금융교육의 교육적 필요성과 중요성을 자각했을 때 비로소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고백한 바와 같이, 교사교육자인 나조차도 지난 세월 동안 금융에 무관심한 존재였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경제와 금융을 잘 몰라도 현재의 경제생활이나 노후 생활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안정적 존재였다. 학력을 통한 지위 경쟁에서 살아남았던 나와 아내는 1990년대 말에 부부 공무원이 되었고, 두 사람 모두가 50대에 접어들면서 국가가 다박다박 주는 월급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돈 걱정이 없는 삶이 참으로 감사했다. 하지만 3년 전에 ‘팬데믹 머니(pandemic money)’를 만나면서,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에 균열이 일어났다.

국가가 지급하는 봉급만으로 안정적이고 청빈한 삶을 살았던 나는 상당히 이기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자각을 하고 나서야 일부 국민들이 왜 공무원 연금제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국립대 교원이었던 내가 이기적이었던 이유는 학력을 통한 지위 경쟁에서 내밀린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과 목소리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살인적인 학력 경쟁에서 살아남은 나 자신이 대견했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나를 자수성가했다고 자부한 나였기에 나의 두 아들들도 나처럼 학력 경쟁에서 살아남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나는 자식들에게 이른 경제적 자립과 독립을 강조했었다. 이른바 나는 아들들에게 ‘짚돌이 아빠’였다. 내

가 그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독립 그리고 학력을 강조했다던 이유는 내 부모들처럼, 나도 자식들에게 증여해줄 만한 큰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모들로부터 특별한 경제적 후원을 받지 못한 내 삶은 딱 여기까지였던 셈이다.

한 지인의 권유와 도움으로 금융투자를 했던 나는 2020년에 뜻밖의 행운을 잡게 되었다. 육체적 및 정신적 노동이 없는 금융소득을 얻고 나서야 기존 학교교육과 근로소득의 관계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 나는 학교라는 다소 폐쇄적이고 협소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유능한 존재였을지는 몰라도, 학교 밖 넓은 사회에서는 평생 동안 안정적으로 ‘가난한 아빠’ 였던 것이다. 나는 돈을 충분히 벌어서 내 식솔들과 일가친척 그리고 이웃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의 근로소득으로는 이러한 이타적 삶이 애초에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뜻밖의 금융소득을 얻게 되면서, 나도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들의 경제적 삶을 돌볼 수 있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배워서 남 주는 교육적 존재를 넘어, 벌어서 남을 주는 경제적 존재도 되어보기로 결심했다. 마치 돈 키호테와도 같은 생각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치열하게 금융학습을 하였고, 교사들이 학교기반 금융교육에 동참하기를 기대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도에서 ‘학교기반 금융교육’ 이 비롯되었다.

오늘 저녁에 둘째 아들과 복리의 마법에 대해 논쟁했다. 둘째 아들은 금융교육을 통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다는 내 주장을 반박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자독식의 경제적 구조와 사회적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모든 사람이 금융투자를 통해 복리의 수혜를 거두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어린놈이 왜 그렇게 싸수가 없냐고 짜증을 냈지만, 내심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내 아들이 이처럼 경제적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정에서 금융교육을 하지 않은 탓이었고, 학교와 선생님들도 금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연구자의 반성적 저널 중 일부, 2023. 03. 23).

학교기반 금융교육 강좌를 수강했던 참여 교사들은 왜 학교에서 교사가 금융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의아해했다. 교사 대부분은 학교가 세속적인 돈을 좇는 일에 거리를 두면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공적 공간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강의 초반부에 미래교육이나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주장하는 나의 의도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눈치였다. 금융을 대하는 그들의 미온적인 학습 태도는 마치 3년 전 내 모습과 같았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 라는 온라인 플랫폼과 학습자료를 통해 수업참여 교사들이 금융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시

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R. Kiyosaki의 아이디어를 소개하였고, 금융투자로 큰 부를 일군 투자가들(A. Kostolany, 주식농부 박영욱)의 관점을 안내했으며, 자본주의와 금융에 대한 EBS 교양 다큐멘터리(자본주의 1부, 2부)를 시청하면서 글을 쓰고 대화를 나누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수업참여 교사들은 학교교육과 금융자본주의를 연결하여 모두가 더불어 잘 살기를 희망하는 나의 도전에 공감해 주었고, 학교에서 동료들과 함께 금융교육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 문맹이라는 용어가 크게 와 닿았다. 글을 모르거나, 문해력이 낮으면 문학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금융 문맹으로 현시대를 살아가면 사회의 현상, 경제의 흐름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금융 문맹 정의에서 소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의아하다. 금융 주체로서 소비만 가능한 것인가? 금융 행위, 금융 생활로 대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문희란 교사, 저널에서 발췌, 2023. 04. 25).

둘째,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수업참여 교사들이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다시금 정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여기에서 말한 교사의 정체성과 역할 재정의란 학교교사가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과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교기반 금융교육에서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발달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교수 주체로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과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실천하는 주체로 변모하는 것이다. 수업참여 교사들은 학교기반 금융교육 수업을 통하여 금융에 대한 생경함과 거리감을 좁혀 나갔으며, 자신들의 학교와 교실에서 금융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한 학기 동안 학교기반 금융교육 수업을 들으면서 교사로서 나의 금융에 대한 무지를 깨달았다. 교육받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금융교육 분야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경제 주체로서 금융교육의 목표보다는 소비자로서 금융교육에 머물러 있는 현재 나의 교육 수준을 직시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무지이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자기 연찬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한송이 교사, 반성적 저널, 2023. 05. 30).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라는 점을 강조한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따져보고, 경영 철학에 따른 경영 과정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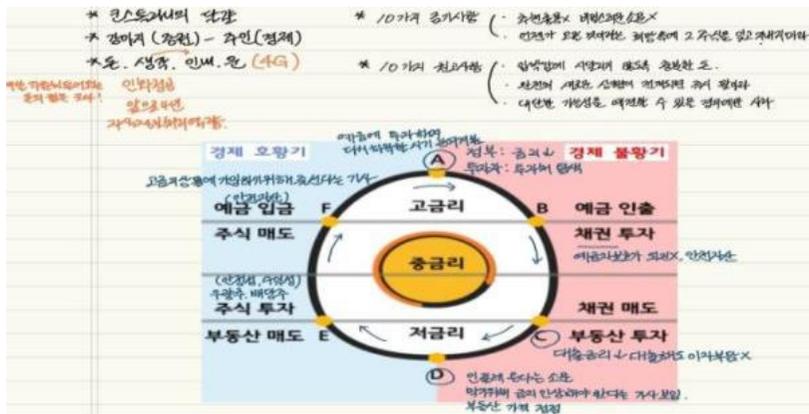
냉철하게 판단하고 투자하며 동행한다는 소비자나 투자자로서 해야 할 역할과 권리를 강조하는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융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의 눈을 길러준다면, 아이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꿈과 가능성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다정이 교사, 반성적 저널, 2023. 03. 28).

(2)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위한 교사의 교육역량 기르기

첫째,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위한 교사의 금융교육 역량을 기르기 위해 교사들의 금융이해력 신장에 주목하였다. 금융이해력은 개인 혹은 가족의 웰빙(well being)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주요한 연구 주제로 간주하지 못했다(Rinaldi, 2013: 249). 따라서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금융 자체에 대한 내용학, 금융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교육학, 금융과 학교교육을 연결하는 금융교육학에 교사들을 초대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수업참여 교사들이 내용학적 차원에서 금융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교과교육학 차원에서는 이러한 금융지식을 바탕으로 능숙하고 자신감 있게 금융교육을 시도할 수 있는 금융 수업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수업참여 교사들의 다수는 학창 시절에 금융 혹은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수업참여 교사들이 금융 자체에 대한 내용학적 이해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면, 참여 교사들이 금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금융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수업에 활용하였으며, 유튜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이해력을 신장해 나갔던 나의 금융학습 경험을 교사들과 함께 공유하였다.

우리 선생님들은 금융 자체에 대한 내용학적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다. 몇 년 전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학교교사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금융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직업진로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빈부격차, 청년실업, 노인 빈곤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교육학자인 나는 교과교육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융학자도 아니기에 금융교육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내가 하는 이 일을 ‘금융교육사회학’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연구자의 반성적 저널, 2023. 03. 14).



[그림 IV-1] 금융투자교육 관련 메모 중 일부(은하수 교사)

둘째,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수업참여 교사들이 금융교육학적 이해를 넘어서 실제적인 금융투자를 하도록 권장하였다. 왜냐하면, 수업참여 교사들이 실제적인 금융투자를 경험해야 금융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 가치 및 태도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행함을 통한 배움을 추구했다. 다수의 수업참여 교사들은 학기 초에 실제적인 금융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따라서 나는 실제적인 금융투자 경험과 노하우를 그들에게 전수하기로 결심하였다. 우선, 수업참여 교사들에게 내가 손수 운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내역(가계 저축/부채 내역, 연금저축펀드 내역, IRP 계좌, 주식 포트폴리오, 채권, 가상화폐)을 공개하였고, 금융 의사결정에 따른 최근 3년 동안의 수익률을 가감 없이 공개하였다. 그리고 금융자산을 운용할 때 수반되었던 재무적 및 심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최근 2년 동안 금융시장의 하락세로 금융투자 결과가 신통치 않았음에도, 수업참여 교사들은 나의 권유에 따라 조심스럽게 금융투자를 시작하였다. 수업참여 교사들은 자신의 금융 의사결정에 따른 손익의 정도를 떠나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 자체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기 말에 다다르자 금융이해력을 바탕으로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고, 학교에서 금융을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에 금융수업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금융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투자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수업 중에는 주식투자를 안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수업을 계기로 주식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주식의 변동성이 두려워서 잠시 매도했고, 작은 수익을 올리기도 했어요. (중략)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용기를 갖고 금융투

자를 제대로 해보기로 했어요. 잘 될지는 모르지만요(기억자료, 수업 중 채송화 교사의 내러티브 중 일부, 2023. 05. 30).

2.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수업방법 논의하기

(1) 학교기반 금융 교육과정 개발 방향 살피기: “무엇을 어느 정도 가르칠까?”

첫째,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수업참여 교사들과 함께 금융교육의 목표와 교육내용을 논의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유·초·중 학교기반 금융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학교기반 금융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을 논의할 때 핵심은 금융에 대한 내용학적 지식을 학교급별 교육목표와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 교수학적 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으로 전환하는 일이었다. 우선,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교수학적 내용지식을 검토하기에 앞서, 수업참여 교사들과 함께 학교기반 금융교육의 목표를 명료화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위한 교수학적 내용지식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OECD와 PISA, 그리고 세계 각국의 학교기반 금융교육의 목표는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금융 관련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고루 포함하는 금융이해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금융 의사결정 역량을 신장하는 것이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도 학교기반 금융교육의 목표로서 학습자의 금융이해력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이소연 외, 2020).

미국교육은 개인이 노력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금융이해력(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금융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의 금융교육은 다소 소극적이고 통제적이다. 예금과 저축 등 안정적인 위험도가 낮은 금융활동을 중요시하고 있다. 개인의 금융이해력보다는 학생이 전반적인 경제 질서에 적응하고 순응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금융교육의 배경에서는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소극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위주로 투자가 진행되어 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미국의 금융교육 제도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의 금융이해력을 강조하고, 금융투자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육목표와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꽃미남 교사, 저널 중 일부, 2023. 05. 23).

한편, 나를 포함한 수업참여 교사들은 유·초·중학교에서 학습자들의 금융이해력을 신장하기 위해 무엇을 어느 정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수학적 내용지식을

탐색하였다. 나는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적 내용지식을 탐색하기 위해 비교교육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래서 수업참여 교사들과 함께 한국과 미국의 금융교육 표준안을 비교분석하였고, OECD와 PISA의 금융이해력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의 금융 관련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학교기반 금융교육과정과 교과서(사회, 실과, 도덕, 기술/가정, 경제)에 대한 내용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공통의 5대 영역과 그에 따른 교수학적 내용지식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소득/소비(예산, 수입, 지출), 저축/투자, 신용/부채(신용관리와 대출, 부채관리), 위험관리/보험, 금융 의사결정(합리적 금융생활, 개인 재무관리,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이었다.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사회학자인 나는 학교기반 금융교육에서 교과교육학자와는 달리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교사들과 함께 금융교육 관련 교과교육연구물을 검토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기존 교과교육학자들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분석할 때, 주로 내용학의 관점에서 내용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이었다. 교과교육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금융학의 차원에서 내용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접근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기반 금융교육에서의 교수학적 내용지식을 일반교육학의 입장에서 살펴본 연구가 흔하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나 같은 교육학자들이 금융교육에 학술적 관심을 가지 않아서일 게다. 바야흐로 교육과정사회학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을 이야기할 시대가 온 것 같다(연구자의 반성적 저널, 2023. 06. 26).

둘째,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학교기반 금융교육 교수경험을 통하여 유·초·중학교 금융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을 알게 되었다. 첫째, 교사들이 단위학교에서 금융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시 학교교육과정 내 편제와 시간 배당에 대해 고려해야 했다. 즉, 교사는 기존 기본교과(사회, 실과, 기술/가정 등) 내에서 금융 학습경험을 재구성할 것인지, 교과 간 융합교육을 시도할 것인지,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학교자유시간을 통하여 차별적인 교육활동이나 단일교과를 개발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둘째, 학교기반 금융 교육과정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계열성과 지속성이 중요하였다. 우선, 학교기반 금융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는 다른 기본교과와 중복되는 내용을 최소화해야 했다(이종희·이연숙, 2015). 이러한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교육과정의 계열성과 지속성이었다. 즉, 학교급이나 학생의 수준에 따라 금융 교육과정의 범위와 난이도를 조절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로 이어지는 여정에서 금융교육이 지속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필요했다. 셋째, 학교기반 금융 교육과정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 사이에서 접합성(articulation)을 강화해야 했다. 여기에서 말한 교육과정의 접

합성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로 분절된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일관성을 유지한 채 매끄럽게 잇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참여 교사들과 함께 한국의 현행 금융 교육과정을 분석해본 결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금융 교육과정은 서로 분리되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학교기반 금융 교육과정의 이러한 체계화를 위하여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과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경제·금융교육이 별도의 교과로 선정되었으면 한다. 범교과 주제 10개(안전·건강교육, 인성 교육, 진로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중 학생 개인의 삶에 압도적 영향력을 주는 분야가 경제·금융교육이라고 생각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며 투자의 실패로 인해 설사 어려운 생활을 할 지언정, 금융에 대한 무지로 어려운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꽃미남 교사, 저널 중 일부, 2023. 05. 16).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위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진 형태로 두지 않고 내용 요소별 묶어 점진적으로 심화되도록 교과 내 교육과정을 재배열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교과 간 교육과정 협의가 필요하다. 물론,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논문을 읽고 나니 금융경제교육 관련 내용이 턱없이 부실하다고 느끼므로, 금융교육 표준안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영역의 내용이 풍부하고 균형이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내용을 양적, 질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은하수 교사, 저널 중 일부, 2023. 04. 25).

(2) 금융교육을 위한 수업방법을 찾기: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까?”

첫째,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수업참여 교사들과 함께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수업방법을 상상하였다. 나를 포함한 수업참여 교사들이 수업방법을 상상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학교기반 금융수업에 대한 직접적인 교수경험이 없었으며, 기본교과에서의 교수·학습과 차별화된 수업방법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나와 참여 교사들은 학교기반 금융교육에 대한 국내외 우수 수업사례를 논의한 결과, 수업방법과 관련하여 3가지의 통찰을 얻게 되었다.

우선,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위한 수업방법은 금융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모두 포함하는 성취기준과 학습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금융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균형적으로 포괄하는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 기반 수업은 금융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과 일맥상통하였다. 둘째, 교사는 학교기반 금융수업을 시도할 때 학교급(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학생들의 발달 수

준을 고려하여 소득/소비(예산, 수입, 지출), 저축/투자, 신용/부채(신용관리와 대출, 부채관리), 위험관리/보험, 금융 의사결정(합리적 금융생활, 개인 재무관리,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였다. 예를 들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소비, 저축, 위험관리 및 보험에 초점을 두다가, 중학교로 이행할 때는 소득, 투자, 신용 및 부채관리, 금융 의사결정에 방점을 둘 수도 있었다. 셋째,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위한 수업방법은 학생들이 가상 혹은 실제적인 금융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자신들의 생활세계에서 발생한 금융 관련 이슈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학교기반 금융수업은 학생이 용돈 관리나 소비자교육에 참여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가상의 금융 문제상황 혹은 실제적인 금융 학습과제나 수행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래, 교사, 부모와 상호 협력하는 교육활동을 지향하는 게 중요하였다. 따라서 실효성이 높은 금융수업 환경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협력과 연계 지도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미래의 학교기반 금융수업이 유아와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부유한 삶을 상상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줬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학교와 교사의 수업방식이 조금은 더 과감해져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기술, 태도를 바탕으로 학교와 교실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가상 혹은 실제적인 금융교육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러한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교육적 도전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아이들이 실제적인 금융투자 활동을 통해 금융투자의 성공과 실패의 맛을 볼 수 있다면, ‘이생망’, ‘올로’, ‘탕진잼’, ‘헬조선’ 이라는 말들이 점차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연구자의 메모 중 일부, 2023. 07. 04).

이 논문에서 조금 익숙했던 점은 Jenny(미국 경제교사)의 수업방법이 현재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유아 주도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방법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다. 특히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를 찾아서’에서 ‘인적자본을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다음 학습 차시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교사가 제시한 흥미로운 질문에서 시작되는 학생의 관심에서 학생 주도의 탐구와 고민, 토론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놀이의 흐름, 놀이의 확장과 비슷하다고 느껴졌고, 교사가 제시하는 흥미로운 질문과 다양한 방식의 수업 자료들은 교사의 놀이 지원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더불어 의미가 있는 배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다(테이지 교사, 저널 중 일부, 2023. 05. 30).

둘째,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수업참여 교사들

과 함께 금융교육을 위한 교과서나 학습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나는 수업참여 교사들과 함께 금융 관련 전문기관이나 금융교육 기관에서 개발한 교과서나 학습자료를 검토하였다. 국내에서 출판된 다수의 금융 교과서나 학습자료는 금융이해력을 신장하기 위한 목표와 교육내용이 균형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흥미와 사고 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교과서나 학습자료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학교급별 금융 교육과정의 낮은 계열성, 계속성, 접합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학교급별로 금융교육 관련 교과서나 학습자료의 적합성이 낮았던 또 다른 이유는 금융전문가 교과서나 교육 자료를 제작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기존 금융교육 관련 교과서나 학습자료의 문제점을 교사들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금융이해력을 지닌 교사가 금융 교과서와 교육 자료 개발의 최적임자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금융 교과서와 학습자료를 개발한다면, 학교기반 금융교육의 연계성과 접합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나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위한 교과서나 학습자료를 누구보다 잘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금융전문가는 금융 자체는 잘 알겠지만,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높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학기 동안 저와 함께 금융과 금융교육을 배웠으니, 기회가 온다면 과감하게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2022개정 교육과정에 학교자율과정이 도입되니까, 학교자율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교과서나 학습자료를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정교한 인정도서를 만드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첫걸음을 내디뎠으면 해요(연구자의 수업 중 발화 내용, 기억자료, 2023. 05. 30).

지난해에 도교육청이 주도했던 경제·금융 관련 교과서 개발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생용 교과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염두에 두면서 학습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일이었어요. 학생들의 실제적인 삶과 사고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자료를 구성하는 일은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늘 함께하니까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학습 자료를 만든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교과서나 학습자료를 제작할 때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어요 (김연꽃 교사의 수업 중 발화 내용, 기억자료, 2023. 05. 30).

V. 나가며

교사교육자로서 나는 교사들에게 학교기반 금융교육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학교기반 금융교육에서 학교교사의 금융이해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자로서 나는 교사들과 함께 학교기반 금융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였고, 학교급별 금융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최적화된 수업방법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교수경험은 교사교육자가 학교교사들과 함께 학교기반 금융교육의 실천적 가능성을 실현하는 일이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교사교육자의 학교기반 금융교육 관련 교수경험의 의미를 교사교육 차원에서 논의하고, 학교교사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교사교육자의 학교기반 금융교육 교수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교사교육의 차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학교교사의 금융이해력 발달이 교사교육자의 교수적 노력에서 촉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즉, 이 연구는 교원양성기관의 교사교육자가 학교교사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시도함으로써,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촉진하는 교수적 주체 혹은 교수적 방아쇠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무엇보다,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사들의 노력 이전에 교원양성기관 교사교육자의 금융이해력 발달과 금융교육 전문성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교육자는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보다 공고히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수업방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금융교육 관련 주체별 경험연구 측면에서 학생과 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삼던 기존 연구동향에서 더 나아가, 교사교육자의 금융교육 교수경험을 조명함으로써 연구의 범위와 영역을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편, 학교교사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교사교육의 차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사가 주도하는 학교기반 금융교육은 금융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갈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독립과 자유뿐만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교육적 장치가 될 수 있다(Miller & VanFossen, 2008; Schug & Lopus, 2008; Wagner, 2019). 근대국가와 궤를 같이했던 학교교육은 정치 및 인권 측면에서 ‘민주시민’이라는 정치적 자유인을 양성하였다. 그러나 과거 산업자본주의에 최적화된 한국의 학교교육은 경제 및 재산권 측면에서 경제적 자유인을 양성하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하지만 학교교사를 금융교육의 주체로 상정하는 학교기반 금융교육은 합리적이고 이타적인 경제적 자유인을 양성함으로써 세대, 지역, 젠더, 계층 사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균형 장치

(equalizer)로써 이바지할 수 있다(한진수, 2017; Elliott, Sherraden, Johnson, & Guo, 2010). 따라서 국가와 교육부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학교 기반 금융교육을 주도하는 교사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와 교육 당국은 학교교사들이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이해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정책과 교사교육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사의 금융교육 관련 교수 전문성과 금융이해력이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OECD, 2014). 하지만 한국의 유·초·중학교 교사들은 학령기 시절의 학교교육이나 교원양성기관의 교사교육을 통해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가 흔치 않은 상황이다(이소연 외, 2020). 따라서 교사교육자는 예비교사 및 학교교사들이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체계적인 금융 교육과정과 수업,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금융이해력을 갖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원양성기관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예비교사나 학교교사들이 자유롭게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원양성기관은 교양 및 전공(교과)교육 영역에서 금융교육을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금융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기반 금융교육을 교육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급별로 차별화된 금융 교육과정을 세밀하게 개발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편제와 시간 배당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단위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편제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사의 금융 교육과정 문해력과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에 학교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이 부상함에 따라, 학교교사는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게 되었다. 즉, 단위학교의 교사들은 지역사회의 요구와 학생들의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금융교육 관련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을 갖게 되었다(박형준, 김주현, 2023). 유치원 교사와는 달리, 의무교육 기관에서 국가가 제시한 기본교과를 가르쳐왔던 초·중학교 교사들이 학교기반 금융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교원양성기관과 시도교육청은 초·중학교 교사들이 금융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중학교 교사들에게 유치원 교사들의 학교교육 과정 및 교과목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금융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유·초·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금융 수업방법을 적용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금융이해력을 갖춘 학교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삶의 수준과 실제적인 삶의 방식을 고려하여 금융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수업전문가이기 때문이다(Bernheim & Garrett, 2003; 홍현의, 최정민, 2021). 따라서 교육당국과 학부모는 교사가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가상적인 금융투자나 실제적인 금융교육 활동을 전개할 때, 이러한 교육적 도전과 시도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 내 학부모가 교사와 함께 학교기반 금융교육에 동참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장은 교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학교자유시간에 활용이 가능한 금융 교과서나 학습자료를 개발할 때, 이러한 노력을 격려하는 지원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 : 2023년 09월 23일 / 수정본 접수 2023년 11월 01일 / 게재 승인 2023년 11월 13일

□ 이 동 성 :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현). 부산대학교 박사. 교육사회학 전공. 관심 분야는 교육과정사회학, 수업사회학, 교사사회학, 질적 연구방법론 dslee@jnue.kr

□ 최 송 이 : 전주양현초등학교 교사 (현). 전주교대교육대학원 석사과정. 혁신미래교육 전공. 관심 분야는 미래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ssongc22@gmail.com

<참고문헌>

- 김동진, 김지훈(2021).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조사 연구. **경제교육연구**, 28(3), 119-144.
- 김하민(2022). 도덕과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 현황 분석: 경제·금융교육을 중심으로. **초등도덕교육**, 79, 353-379.
- 박영옥(2021). **주식투자 절대원칙**. 서울: 센시오.
- 박형준(2022). 한국과 미국의 금융교육 표준안 비교. **시민교육연구**, 54(3), 187-219.
- 박형준, 김주현(2023).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과 주안점. **금융교육연구**, 8(1), 1-14.
- 성경희 외(2022). 초·중·고 학교 소비자교육 내용체계안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25(3), 75-103.
- 손정국, 유진, 김영민(2017). 투자자교육 여부가 금융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금융연구**, 31(4), 103-131.
- 이소연(2018).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사회과 금융교육 관련 내용 분석. **교육연구**, 71, 49-65.
- 이소연 외(2020).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연구**. 연구보고 CRE 2020-2. 금융감독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종희, 이연숙(2015).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금융교육 내용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2), 1-20.
- 장혜숙, 한경근(2022). 발달장애 청소년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경험과 지원요구.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5(4), 73-94.
- 정영선(2015).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금융교육과 금융행위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시민교육연구**, 47(3), 235-267.
- 조지민, 임해미, 천규승, 김경모(2014). PISA 2012 금융이해력 평가와 한국의 금융관련 학교경제교육과정. **시민교육연구**, 46(4), 177-205.
- 천규승(2012). 최근 금융교육 동향 및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31, 1-21.
- 최윤정, 김예지(2015).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한 경험중심 경제교육: 미국 고등학교 금융교육 수업 사례연구. **시민교육연구**, 47(1), 217-245.
- 한진수(2017). 왜 학교 금융교육이어야 하는가?. **금융교육연구**, 2, 25-49.
- 한진수(2019). 금융교육 연구의 동향과 과제. **경제교육연구**, 26(1), 1-35.
- 홍현의, 최정민(2021). 청소년 금융행동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 원리 적용 금융교육 프로그램 방향 제안.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20(2), 89-106.
- Bernheim, B. D., & Garrett, D. M.(2003). The effects of financial education in the

- workplace: Evidence from a survey of househol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7-8), 1487-1519.
- Bowles, S., & Gintis, H.(1986). *Democracy and capitalism: Property, community, and the contradiction of modern thought*. NY: Basic Books.
- Chang, H. (2008). *Autoethnography as method*.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Inc.
- Elliott, W., Sherraden, M., Johnson, L., & Guo, B.(2010). Financial capability in children: Effects of participation in a school-based financial education and savings program.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2(3), 385-399.
- INFE.(2011).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Questionnaire and guidance notes for conducting an internationally comparable survey of financial literacy. OECD.
- Kiyosaki, R. T.(2017). *Rich dad, poor dad: What the rich teach their kids about money that the poor and middle class do not!* (안진환 역, 2018).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20주년 특별 기념판). 서울: 민음인.
- Kostolany, A.(2015). *Die kunst, uber geld nachzudenken* (한운진 역, 2015).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서울: 미래의창.
- Mandell, L.(2009). Financial education in high school. In A. Lusardi(Ed.), *Overcoming the Saving Slump: How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Education and Saving Programs* (pp.257-27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ler, S. L., & VanFossen, P. J.(2008). Recent research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pre-collegiate economics. In L. S. Levstik & C. A. Tyson (Eds.), *Handbook of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pp.284-306). New York: Routledge.
- OECD.(2009). *OECD/INFE project on financial education at schools*. OECD Brazili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al Education Rio de Janeiro, 15-16 December.
- OECD.(2014). PISA 2012 results: students and money - Financial literacy skills for the 21st century Volume VI.
- Peng, T. M., Bartholomae, S., Fox, J. J., & Cravener, G.(2007). The impact of personal finance education delivered in high school and colleg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8(2), 265-284.
- Reed-Danahay, D. (Ed). (1997). *Auto/Ethnography: Rewriting the self and the social*. New York: Berg.
- Rinaldi, E.(2013). “Reframing Financial Literacy” in sociology of education. *Itali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5(2), 249-252.

- Schug, M. C., & Lopus, J.(2008). Economic and financi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Social Education*, 72(7), 359-362.
- Sherraden, M. S., Johnson, L., Guo, B., & Elliott, W.(2011). Financial capability in children: Effects of participation in a school-based financial education and savings program. *Journal of Family & Economic Issues*, 32(3), 385-399.
- Wagner, J.(2019). Financial education and financial literacy by income and education group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0(1), 132-141.

Abstract

A teacher educator's autoethnography of school-based financial education experience

Lee, Dong-Sung(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oi, Song-Yi(Jeonju Yanghyeon Elementary School)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ively describe the reality and meaning of a teacher educator's teaching experience related to school-based financial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eacher education. This article adopts autoethnography, a type of qualitative case study, to vividly represent teaching experiences related to school-based financial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eacher education. This article was written analytically and interpretatively by creating 8 codes, 4 sub-categories, 2 categories, and 1 core category through thematic analysis that goes back and forth betwee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are briefly presented as follows. Firstly, as a teacher educator, I invited school teachers to financial education by sharing the value and meaning of school-based financial education with teachers and emphasizing teachers' educational capabilities for financial education. Secondly, as a researcher, I looked a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school-based financial education curriculum together with school teachers, and discussed an optimized teaching method for school-based financial education. As a result, these two financial education teaching experiences were to realize the possibility of school-based financial education with teachers. The results of this paper enhance school teachers' financial literacy by illuminating a teacher educator's teaching experience related to school-based financial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eacher education, and provide new educational insights into teacher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chool teachers' financial education expertise.

Key Words: teacher educator, school-based financi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autoethnography